

# 21세기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방향 제언"

정형석 목사

## 1. 한국교회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세계 50대 교회 중 절반가량을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으며, 선교사 파송 또한 놀랄만한 숫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현재 한국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며,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제 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도덕적 타락, 물량주의, 기복사상 등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한국교회는 핍박받는 소수가 아니라 사회를 책임질만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는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국한된 일방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른 영역에서도 기독교 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관이다. 하나님은 인간사회의 삶의 전영역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 2. 장애인 복지선교의 중요성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사회사업을 낳아 기른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는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다. 장애인은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소외감, 신체적인 불편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자중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는 장애인복지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적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하버드대학 철학교수인 존 롤즈(J. Rawls)는 「정의론」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고,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사상과도 통한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대접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선교란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로서 기독교의 장애인 사역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선교를 동전의 양면처럼, 가위의 양날처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즉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교를 들고 일한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사회의 장애인복지와 구별하기 위해 ‘장애인선교’, ‘기독교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선교’ 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선교가 전도와 복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전도가 강조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장애인복지는 복지가 강조된 개념이며, 장애인복지선교는 복지와 선교를 동반자의 관계로 보는 개념이다. 또한 장애인선교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선교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복지를 통한 선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처럼 교회의 장애인복지와 사회의 장애인복지를 차별하는 이유는 교회의 장애인복지는 신본주의인데 반하여 사회의 장애인복지는人为本주의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장애인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반면에 사회의 장애인 복지의 동기는 인간 존중이며, 목적은 사회통합이다. 물론 교회의 장애인복지도 인간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하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회사회사업은 교회의 전문적인 사역으로서 사회사업의 독립적인 분과가 될 수 있다. 사회사업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이 하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 3. 장애인 복지선교의 방향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 장애인복지선교의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방향을 제언해 본다.

첫째, 전문화되어야 한다. 현재 기독교의 장애인복지는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랑과 복음이 중요하지만 감상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복음만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회사회사업을 사회사업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고 장애인복지선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사랑의 자원을 조직화, 체계화시키고 과학적인 방법론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신앙으로 무장된 전문가를 채용하고, 양성해야 한다.

둘째, 연합을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선교는 하나님나라의 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교회, 기독교기관, 선교기관, 기독교 복지기관 등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할 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역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한 교회, 한 기관이 장애인복지선교를 전부 감당할 수 없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구제사업도 전문기관과 함께 사역하면 더욱 생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특수교육도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도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복지선교도 통합목회, 통합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교회안에서 통합목회가 이루어지고, 선교현장에서 통합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선교, 장애인재활만 가지고는 장애인의 진정한 재활을 이룰 수 없다.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복지를 활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선교를 통하여 일반인 선교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특히 선교가 어려운 사회주의, 회교권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선교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 훈련과정에 장애인복지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를 전공한 평신도 사역자들과 팀선교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